

나경원 “저와 文대통령 · 조국 황교안 자녀 특검…국민 궁금”

“야당에게 의혹 제기하는 여당과 진지한 논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헌자 조국 파면 촉구 집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제안한 것이 ‘새로운 물타기’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여당과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야당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아들 특혜 의혹부터 원정출산까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조국을) 감싸다 못해 이제는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가짜 물타기에 대해 저희가 요구한다. 문 대통령 딸과 아들, 조 장관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 딸과 아들, 저희 딸, 아들까지 다 특검하자”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물타기로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려고 하는데 국민이 속했다. 한국당을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끝까지 조국 파면을 이뤄내겠다”며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혜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물타기 주장을 물타기로 증폭하는 신공을 발휘했다”며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자신의 아들, 딸 관련 특혜의혹을 비껴가려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물타기 신공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신중 수법”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자신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이 얼마나 저렸으면 그런 제안까지 했을까”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은 여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제2의 조국 청문회’ 예고한 野

與 “정책 경쟁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공방이 오는 26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국공방이 아닌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대정부질문이 되길 바란다”고 21일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정부 질문을 제2의 청문회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생, 개혁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조 장관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낱알이 지적하겠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없는 죄 만들

지 말고 있는 죄 덮지 말라. 그리고 제1야당 꼬투리 잡을 시간에 자기반성이나 하고 변화되는 민심의 온도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경제는 도탄이고 외교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법치는 흔들리고 사회 정의는 위태롭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낱가롭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국 사태로 폭주하는 문재인 기관차의 오만과 독선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어떤 신호도 무시하며 미친 듯이 내달리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국민은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회 다방면의 문제점을 깊고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국민의 걱정을 대신하고 정부 정책의 허물을 벗겨 바로잡을 수 있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조국 사태’를 대정부질문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기도 하는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평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조 장관 임명과정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실

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며 “조 장관을 통해 교육 문제의 문제점이 압축해서 나타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과 교육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득권을 타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대안정치)는 ‘조국’과 ‘민생’ 관련 질의를 모두 던질 예정이다.

민주당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민생국회, 약자와의 동행 등을 천명한 만큼 이에 힘을 쓸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혼남 등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등 전반적으로 민생이 몹시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장정숙 대안정치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양파 겹질 벗겨지듯 나오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경제 파탄에 방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뒤이어 외교·통일·안보(27일), 경제(30일), 교육·사회·문화(10월 1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다.

홍준표, 계속되는 날 선 나경원 비판…이유는

전문가 “총선 앞두고 공천 대비 및 존재감 각인 측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원정출산 의혹까지 언급하는 등 연일 손소리를 날리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선 홍 전 대표가 정부·여당과 조국 법무부장관뿐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까지 이른바 ‘모두가’ 행보를 통해 당내 입지와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려 한다는 분석이다.

야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황교안·나경원 당지도부 체제를 흔들고 대안인물로 자신을 내세워 입지를 높여려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다. 홍 전 대표는 21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핵심은 다른 사항도 있지만 원정출산 여부”라며 “조국(장관)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며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논쟁은 끝난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 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한방에 역전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2일에는 “한국에 살

면서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출산”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예들려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홍 전 대표가 진정으로 한국당을 걱정한다면 내부적으로 그 뜻을 전하면 되지, 사 회관계망을 통해 예들려 ‘공개 총질’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에 나온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합리적 중도진보도 끌어올려야 하는데 보수 내부를 공격해서 무엇이 남을까 싶다”며 “나 원내대표가 잘못된 지점도 있었지만, 홍 전 대표가 현 당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공천 문제 등 총선을 대비하고 자신의 정치적 비중을 늘리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임박해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